

企業間 協力 : 特許 技術 共有

姜 聲 龍 部長
(株) 金 星 社

지난해 7월 金星社와 三星電管은 兩社가 相互 特許實施許與 契約을 체결하였다. 이 契約은 앞으로 國內 企業間의 技術 交流가 強化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意味가 부여되고 있다. 企業間의 特許 技術 協力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보다 큰 成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되며 동시에 業界의 많은 努力을 要求하고 있다.

協力の 背景 ……

그 자에 들어 世界가 經濟 블럭(bloc)化와 保護主義의 色彩를 띠고 있으나 흔히 開放 經濟 體制라고들 한다. 開放 經濟 體制란 모든 經濟 分野에서 다른 나라와 공정하게 競爭하는 社會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先進國의 경우 商品 分野에서는 自由化를 주장하면서도 技術 分野에서는 保護 手段을 강구하고 있는 二律背反의인 모습이며, 開途國의 경우 法과 制度的 裝置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어 현재 進行되고 있는 GATT(關稅貿易一般協定)의 烏魯과이라운드에서도 知的 財産權 問題는 우선순위가 높은 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갑자기 技術이 문제시되는 것은 現代의 産業 經濟가 知識 集約化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過去보다는 經濟의 技術 依存度가 높아졌고 技術 자체의 獨立의인 價値가 중요시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技術을 소유하고 있는 者만이 생존하고 國家 經濟도 技術 水準과 技術 開發 努力 여하에 따라 發展 樣相이 달라진다. 따라서 技術 保護를 法的 次元에서 확보하고 合理化하자는 데에서 知的 財産權 問題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美國과 通商 懸案들을 일괄 타결하면

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知的 財産權 保護를 약속하고 이행하여 特許法만 살펴봐도 技術 先進國과 비교할 때 制度的으로는 同一 線上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잘 整備된 制度를 갖추었다 하여 나날이 치열해지는 技術 貿易 戰爭 時代에서 尖端 技術이 確保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電子 産業의 技術 水準은 美國, 日本, 유럽 등 先進國 企業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크게 뒤지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최근에는 國內 業體의 급속한 추격에 위협을 느낀 先進國 企業들이 技術 移轉을 극도로 기피하고, 自社 權利 保護라는 측면에서 特許權 侵害라 하며 提訴하는 등 特許 攻勢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外國 企業이 技術 移轉을 할 때에는 엄청난 技術 使用料를 要求하여 新規 事業 자체를 늦추게 한다거나 經營 環境을 惡化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狀況 아래서 그들의 特許 攻勢에 共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國內 企業間 特許 技術의 協力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推進 經過 ……

이 必要性은 國內 同種 業體간 특허 全擔 部署의

實務者 모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모임은 外國 會社의 動向, 特許 技術 內容에 대한 情報 交換 등 주로 클레임 문제와 같은 당면 문제 해결이 主 目的이었다. 그 후 特許廳이 주관하여 추진하던 특허 情報支援 事業 중 특히 表示裝置 분야에 國內 同種 業體들의 參與와 活動이 더욱 두드러져 이들 懸案 問題가 이 모임에서 深度있게 다루어짐으로써 企業間의 協力 靄圍氣가 더욱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海外로부터의 特許 클레임(claim)에 國內 業體가 共同 對應하기 위한 相互 協助 體制 構築이 필요하다는 意見이 모아져 特許廳 主觀으로 지난해 4월 表示裝置 分野(LCD), 브라운관 모니터 分野의 實務協議會가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各社間 保有 特許權에 대한 相互 實施 許與(cross-license)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대두되었다.

企業 間의 特許 使用의 共有는 비슷한 技術 水準에 있는 企業 間에 철저히 利害 得失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同種 業體間 特許權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하고 信賴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關聯 會社는 여러 가지 각도로 特許 技術 協力 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各 社의 立場과 利害 關係가 엇갈려 소기의 目的을 이루지 못했다.

先進 外國 企業 間의 特許 交流는 脆弱 分野의 技術을 보완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尖端 分野의 技術 開發에는 막대한 投資 負擔이 뒤따르고 技術 開發 速度가 예전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危險을 相互 分擔하고자 特許權 協力 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美國 IBM이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技術을 보강하기 위해 騰폰社와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맺은 것이나, 작년 美國의 半導體 業體인 인텔社가 일본 도시바와 半導體 部門의 크로스 라이선싱 契約를 체결하는 등 外國 企業들 間의 特許 交流는 國境을 넘나들고 있다. 또한 日本에서도 大企業들 사이에 技術 分野別, 製品別 特許 交流를 하여 同種 業體 間의 協力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國內 企業에서의 特許 管理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974년 韓·日 工業所有權 協定 발표 이후 日本의 工業 所有權이 國內에 出願

된 時期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全産業의 과금은 特許의 重要性和 特許 管理의 必要性이 제고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國內 企業에서의 特許 管理는 企業들이 創業하여 自社 商標에 대한 出願 登錄 管理를 하는, 아직까지도 部分的이고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다. 企業에서의 特許 全擔 部署 役割과 環境이 이와 같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産業 財産權인 自社 管理 및 他社 權利를 評價하고 運營 管理하여 特許權 相互 實施 許與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 發足하여 모임을 가진 表示 裝置 分野에 대한 特許 實務 協議會도 各社의 立場 差異와 内部 意見 調整 등 상당히 힘든 과정과 진통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이후 特許廳의 仲裁 努力과 支援에 힘입어 지난해 6월 28일 金星社와 三星電管이 兩社가 보유하고 있는 브라운관과 모니터 液晶 表示 裝置(LCD) 관련 분야의 特許 實用新案 儀裝 약 2,000 件씩을 無償 사용하기로 하는 相互 特許 實施許與 契約(cross-license)이 체결되었다. 이들 會社는 特許 保有 件數나 技術 蓄積度가 서로 비슷하여 최종 合意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競爭 企業 間의 協力は 國內에서는 처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國內 經濟 與件, 政治 狀況, 海外로부터의 開放 壓力 등의 時代的 環境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신선한 衝擊으로 받아들여졌다.

協力 內容은

兩社가 체결한 合意書의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운관, 平板 製品(LCD), 및 모니터에 대한 兩社가 소유한 國內外 特許, 實用 新案, 儀裝의 出願 登錄, 계류 중인 모든 權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存續 滿了日까지 非獨占 實施權을 無償으로 許與한다는 것을 基本 內容으로 하고 있다. 相互 間에 産業 財産權 紛爭이 계류 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兩社가 權利 維持 保護 측면에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는 것이다. 본 合意書는 1992년 7월 1일부터 効力이 發効되

있는데 이 때부터 효력은 3 년간 지속된다. 合意書의 細部 履行 方案으로는 兩社가 상호 定期的 會合을 통해 同種 事業 分野에서 有効한 産業 財産權을 발굴하여 先進 企業에 戰略的으로 對應하고 製品 適用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海外 業體에 대한 特許 戰略을 實現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海外 先進 企業 産業 財産權의 事前 豫防·先行 管理 問題, 海外 産業 財産權 紛爭에 대한 共同 對處의 問題, 協議體 構成 問題 등에 대해 세부 사항이 언급되고 있다.

評價 및 期待 效果 •••

이와 같이 合意된 內容에 대하여 否定的 時刻에서 보는 눈으로는 일반적인 憂慮의 事項과 兩社의 無償 特許實施許與 契約 자체에 대한 事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憂慮의 事項은 國內 企業 間의 견고한 協力 體制 構築으로 인해 先進 企業의 特許 侵害에 대한 協商이 強化될 것이라는 視覺과 아울러 技術 移轉 忌避 現狀도 더욱더 深化될 것이라는 見解이다. 또한 국내 기업 간에 特許를 共有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特許를 無償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觀點에서 技術 開發과 特許에 대한 投資를 소홀히 하여 特許 出願 件數가 급격히 減少할 수 있다는 視覺이다. 本 契約 自體에 대한 否定的 思考로는 兩社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權利에 대하여 各社가 충분히 財産의 價値를 판단하지 않고 契約을 체결한 것은 冒險에 가까운 行爲이거나 兩社가 보유하고 있는 權利 自體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체결이 가능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技術 開發과 特許 管理 協力は 상당한 意味가 주어져야 한다. 세계에는 契約을 체결한 當事者 會社만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國內 會社와의 協力 關係 構築은 國家 競爭力 強化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의 肯定的 側面으로 先進 企業의 對國內 企業의 技術 移轉 자세도 들 수 있다. 그간 同種 業體 間의 相互 牽制는 外國 先進 企業에 유리한 立地를 제공하여 왔으나 特許 侵害 紛爭에 대하여 協商을 벌려왔던 先進 企業들이 兩社의 特許 協力 體制 構築이 알려짐과 동시에 로열티 문제에 있어 용

통성을 보이는 등 態度 變化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本 契約 自體의 의미는 서로간 損害를 볼 수 있다는 觀點에서 출발하여 讓步를 통해 보다 큰 利益을 추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先進 外國 企業들도 自社·他社의 모든 것을 評價 分析한 후 契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産業 財産權 相互 無償 實施의 合意를 통해 얻을 수 있는 期待 效果나 意味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關聯 會社는 서로의 特許를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技術 開發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權利에 대하여 異意 申請 또는 無效 審判 등을 통해 權利를 無力化시키거나 서로의 特許權을 인식하여 回避 設計를 하는 등 불필요한 努力과 費用과 時間의 浪費를 제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좋은 特許 技術 內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技術 開發 促進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外國으로부터의 特許 權利 主張에 共同으로 對應하여 相互 利益을 꾀할 수 있다.

풍부한 經驗과 專門의인 知識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아 關聯 會社 間에 共助 體制를 유지함으로써 問題가 되는 外國 特許에 대한 技術的 分析, 資料 調査, 서로가 입수한 外國 他社들의 動向에 대한 情報 交換이라든가 協商에 대응하는 戰略의 統一 등 서로 협력하여 實益을 취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을 의식한 불필요한 特許 出願 競爭을 止揚하고 內實있는 特許 管理 體制로의 轉換을 기대할 수 있다.

企業間의 競爭은 당연한 것이나 과거에는 競爭의 程度가 지나칠 때도 있었으며 特許 分野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과도한 競爭을 벌려 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相互 特許權에 대한 無償 實施 許與 契約 체결을 계기로 무리한 特許 出願을 하여 발생하는 費用 浪費를 막을 수 있어 經濟的인 特許 管理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各社가 보유하고 있는 産業 財産權에 대한 內在 價値를 높일 수 있다.

국내 기업이 先進 外國 企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優秀한 技術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

나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優秀한 技術마저 서로 그 價値를 認定하지 않아 外國 企業이 國內 企業의 權利를 인정한다는 것은 期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外國 企業과의 特許 契約 協商에서도 좋은 武器로 활용될 수 없었으며 市場 開放에 따른 先進 外國 企業의 商品 輸入에 대한 特許權 侵害 등 적절한 制動 機能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契約를 통해 相互 權利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各社 權利에 대한 內在 價値를 높일 수 있는 效果가 있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兩社의 特許 協力 體制가 同業 他社와 同伴 關係의 安住라는 安易함과 放心이 아니라 善意의 競爭을 통한 相互 發展이라는 또 다른 出發을 意味하는 것이다.

特許 技術 共有 活性化를 위한 提言

企業間的 特許 技術 共有 活性化를 위해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첫째, 企業은 技術 開發 投資 擴大로 獨自 技術을 確保하여야 한다. 최근 數年間 産業銀行이 조사한 「技術規模」 指數에 따르면 韓國은 美國, 日本에 비하여 10%이하, 統一前 獨逸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新技術을 自生的으로 개발할 수 있는 能力을 나타내는 「技術開發」 指數에 있어서는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韓國의 技術 水準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은 과감한 技術 開發 投資를 통해 獨占의 權利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特許 戰爭에서 優位를 확보할 수 있고, 國內外 企業과의 特許 交流가 活性化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企業의 認識 轉換을 통해 專門의 特許 管理 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

企業에 있어서 特許 專擔 要員의 경우 아직도 特許 業務를 閑職視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出願·登錄 業務에서 벗어나 企業 經營에 직결되는 特許 活動 領域 確保가 필요하며 이는 特許 分野 종사자의 使命感과 努力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企業에서도 特許 管理에 대한 認識 不在와 더불어 支援 優先 順位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專門 人材의 養成 努力과 管理 體制의 構築이 앞으로 企業 利益이 기대되는 知的 産業 社會에서 競爭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企業 및 關聯 團體間 共同 技術 開發 體制와 特許 技術協議會 구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技術 開發이 企業의 死活은 물론 國家 經濟 發展 여부가 걸려 있다는 認識으로 企業間 共同 技術 開發을 통한 特許의 共有 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研究 組合 등을 통한 國內 共同 技術 開發 成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國內 企業의 큰 弱點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技術 投資를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競爭을 자제하는 한편, 對外 競爭力을 기을 수 있는 協助 體制가 시급한 실정이다. 特許 技術 協議會를 구성하여 新技術에 대한 相互 情報 交換, 외국 기업의 技術 開發 動向, 特許 紛爭에 대한 情報 交換, 共同 세미나, 特許 技術 관련 討論會 등을 가져 協助 體制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政府는 技術 開發 支援 및 權利가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는 特許 制度를 확립하여야 한다.

政府는 그간 科學 技術 振興 政策의 重要性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여 왔으나 技術 開發에 대한 實質的 支援에 있어서는, 研究 開發費 가운데 政府 負擔 比率이 美國 48%, 統一前 獨逸이 4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 수준에 머물러 政府의 각종 技術 開發 支援 對策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政府는 앞으로 強力한 技術 드라이브 政策을 樹立하여 業界의 努力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手段을 강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과감한 技術 投資와 함께 業界의 技術 協助 體制에 租稅 金融 등 支援 惠澤이 주어질 수 있도록 政策의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앞으로 內國人에 의하여 開發된 特許 技術이 존중될 수 있는 風土를 조성하여야 한다. 많은 數의 産業 財產權이 出願되고 登錄되었다고 權利者를 올바르게 保護했다고 할 수 없다. 出願에 대한 올바른 審査 制度를 확립하고 審判을 통하여 權利者의 올바른 保護 體制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專門家들이 産業 財產權의 權利化와 權利 保護에 대한 올바른 姿勢를 견지해 나갈 때 産業 財產權의 位置는 確保될 수 있을 것이다. ♣